

송주호의 명곡 산책 - 2 - 클라리넷

클라리넷은 플루트만큼이나 많은 애호가를 확보하고 있는 목관악기입니다. 하나의 리드를 갖고 있어서 플루트보다 소리가 강하고, 두 개의 리드를 가진 오보에보다는 약간 어두운 음색을 갖고 있죠. 그런데 클라리넷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작품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라고 할 정도로 비교적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리넷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많은 작품들이 작곡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플루트가 작은 새소리 묘사에 주로 사용된다면, 클라리넷은 빠꾸기 소리의 묘사에 탁월한 재주꾼이라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이나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에서처럼 말이죠.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에서는 고양이 역할에 클라리넷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클라리넷 소리를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 로베르트 슈만 Robert Schumann (1810~1856)

환상 소곡 Fantasiestücke, op. 73 (1849)

슈만은 독일 낭만파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승의 딸인 클라라 비크와의 소설 같은 연애,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던진 가슴 아픈 운명...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질풍에 이르는 노도와 같은 낭만의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슈만의 활약은 작곡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34년에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발간하여 현대적인 음악 평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젊은 쇼팽과 리스트, 브람스 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환상 소곡>이 작곡된 1849년은 당시 슈만이 살고 있던 드레스덴에서 혁명이 일어난 해로, 혁명에 가담했





그림 1.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부인 클라라 / 출처 : www.porcelainista.net

던 바그너가 변장을 하고 야반도주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왓지 슈만의 창작력은 이 해에 최고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작품 번호가 붙어있는 곡만 <만프레드 서곡, Op. 115>을 비롯하여 25곡이 이 해에 완성되었는데요, 불안함에 외출을 삼가다 보니 집에서 작곡만 한 걸까요? 어쩌면 이러한 불안한 기운이 오히려 슈만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었는지도 모르죠.

본래 '야상곡집'(Soiréestücke)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환상 소곡>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리넷에 딱 맞춰 작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곡 당시부터 바이올린이나 첼로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로 연주가 되고 있죠. 그리고 초연도 클라리넷이 아닌, <트롬본 콘체르티노>로 작곡가로서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동갑내기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바이올린 연주로 1852년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아노는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비크-슈만이 맡았는데요, 슈만은 이 초연이 매우 훌륭했다고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듬해에는 하노버에서 왕과 왕비가 참석한 연주회에서 당대 독일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던 요제프 요아힘이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모두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와 같은 '부드럽고 표현적인' 선율이 휘감는 아름다운 첫 곡으로 시작하며, '쾌활하고 가벼운' 2악장이 이어지죠. 클라리넷과 피아노가 선율을 교환하며 대화하는 2악장에서 피아노의 활약이 돋보인다면, 3악장은 '불이 붙는 듯한' 열정이 넘치는 클라리넷의 활약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클라리넷 삼중주 Trio für Klavier, Klarinette und Violoncello a-moll, op. 114 (1891)

브람스는 함부르크에서 더블베이스 연주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는 피아노였죠. 그는 10대 때에 이미 선술집에서 연주하여 가정의 생계에 보탬 정도로 일찍부터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20세였던 1853년에는 헝가리의 바이올린 거장이었던 에두아르트 레메니와 연주 여행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 여행 중에 리스트의 연주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브람스는 당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던 요제프 요아힘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뒤셀도르프에 있었던 슈만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죠. 슈만은 브람스의 자작곡 연주를 듣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베토벤의 후계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듬해 슈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여 둘의 인연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브람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을 클라라가 세상을 뜬 1896년까지 보살피 주었습니다.

브람스와 가까웠던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중에 법학자이자 음악학자였던 에두아르트 한슬릭이 있었다는 사실은 브람스 음악의 특징을 대변해줍니다. 데트몰트에서 지휘자와 피아노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브람스는 1862년 빈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그를 만났죠. 음악의 본질은 형식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절대적인 의미를 강조했던 한슬릭은, 음악을 통해 문학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려고 했던 바그너와 리스트를 비판하고, 신고

전주의의 노선에서 절대적인 음악을 작곡했던 브람스를 지지했습니다. 브람스는 빈에서도 베토벤의 진정한 후계자로 추앙받았으며, 1869년부터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빈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작품은 만년에 작곡된 단 네 곡뿐으로, 1891년에 마이닝엔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리하르트 뮐펠트(Richard Mühlfeld)의 연주를 듣고 영감을 얻어 탄생하게 되었죠. 브람스는 그 해에 <클라리넷 삼중주, Op. 114>과 <클라리넷 오중주, Op. 115>를 작곡하였으며, 3년 후에 <두 개의 클라리넷 소나타, Op. 120>를 작곡하였습니다. 이 곡들은 3년의 간격 사이에 작곡된, 만년의 우수가 담긴 네 세트의 피아노 작품과 정서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미로운 화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클라리넷 삼중주>는 브람스의 첫 클라리넷 작품으로, 1891년 12월에 뮐펠트의 클라리넷과 요아힘 사중주단의 첼리스트였던 로베르트 하우스만,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로 초연되었습니다. 고독을 불러일으키는 첼로의 아련한 독주 선율로 시작하며, 곧 클라리넷과 피아노가 뒤따릅니다. 갈팡질팡하는 듯한 브람스 특유의 소극적인 중얼거림은 이 곡에서도 여전하며, 그 활동성은 보다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2악장은 서정적인 멜로디가 차분하게 흐르며, 3악장은 클라리넷과 첼로가 사랑을 속삭이는 듯 우아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3악장도 2악장에 이어 느린 악장을 배치한 것은 특이하지만, 메뉴엣을 연상시키는 3박자의 리듬으로 신고전주의자의 고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악장은 에너지가 넘치는 빠르고 활기찬 피날레로 전곡을 마무리합니다.



그림 2. 요하네스 브람스 /
출처 : flagstaffsymphony.org



그림 3. 리하르트 뮐펠트 /
출처 : www.johannesbrahms.dk

✧ 에르네스트 쇼송 Ernest Chausson (1855-1899)

안단테와 알레그로 Andante et Allegro pour clarinette et piano (1881)

프랑스의 낭만 작곡가 쇼송은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시곡, Op. 24>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의 작품 목록은 대부분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악곡은 <시곡>과 <교향곡>, <비비안> 그리고 손가락으로 꿈을 만큼의 실내악곡이 전부지만, 요즘에는 성악곡보다는 기악곡을 접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쇼송은, 다른 전공으로 시작한 음악가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파리의 한 살롱에서 뱅상 댕디 등의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고, 결국 25세에 파리 음악원에서 줄 마스네의 작곡 수업 수강하며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가파른 언덕을 자전거로 내려오다가 벽에 부딪히는 사고로, 한창 작품을 쓸 시기인 44세라는 안타까운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안단테와 알레그로>는 1881년에 작곡된 쇼송의 초기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 클라리넷을 위한 유일한 곡입니다. 작품 번호도 붙어있지 않은 이 소품은 당시 모든 작곡학도의 꿈이자 출세가도를 보장했던 '로마 대상' 지원곡으로 작곡되었지만, 쇼송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스네의 수업에도 흥미를 잃고, 1882년에 바그너의 가극 <파르지팔>의 초연을 보기 위하여 댕디와 함께 바이로이트를 방문하는 등 바그너에 심취하며 새로운 노선을 모색했습니다.

그렇기에 <안단테와 알레그로>는 쇼송의 음악적 갈림길에 놓인 작품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쇼송의 모습과 다른, 마스네의 영향을 받은 화려하고 프랑스적인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안단테와 알레그로' 혹은 '아다지오와 알레그로'라는 제목이나 그러한 구성은 슈만을 비롯한 낭만 시대에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곡에 대비되는 다양한 정서를 담은 낭만 시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그림 4. 에르네스트 쇼송 /
출처 : upload.wikimedia.org

하죠. 그런데 쇼송의 곡에서 특이한 것은 곡 제목으로 ‘안단테’라고 적었지만, 사실 악보에는 ‘Lent’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렌트’는 안단테와 같이 ‘느리게’라는 의미지만 일반적으로 안단테보다도 느린 빠르기를 지시합니다. 그럼에도 곡 제목을 ‘렌토와 알레그로’가 아닌 ‘안단테와 알레그로’라고 한 것은 당시 이 제목이 유행처럼 많이 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 장 프랑세 Jean Françaix (1912~1997)

주제와 변주 Tema con variazioni (1974)

장 프랑세는 가장 독특한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진 음악사적인 경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로 앞 세대인 프랑시스 풀렝크를 연상케 하는 음악적 유머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으로 프랑세의 음악이 등장하면 유머를 기대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파파게노의 친구’(ami Papageno)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5. 장 프랑세 / 출처 : www.interlude.hk

음악학자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프랑세는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하여 불과 10살 때 첫 작품집을 출간할 정도로 작곡 신동이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음악 교수로 인정받고 있는 나디아 불랑제의 지도를 받기도 했으며, 파리 음악원에서 1등 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아노에도 두각을 보였죠. 20세기의 중요한 프랑스의 첼리스트 중 한 사람인 모리스 장드롱과 듀오로 활동했으며, 또한 풀렝크가 자신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할 때 대동했던 자크 페브리에가 참여할 수 없을 때 프랑세가 대타로 풀렝크와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연주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작곡 중’이었으며, 200곡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피아니스트답게 피아노 작품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목관악기 연주회에서 그의 이름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그의 작곡 스타일에는 따뜻하면서도 개성적인 색채를 가진 목관에 서 더욱 빛을 발하는 까닭이죠.

1974년에 작곡된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변주>는 클라리넷의 다양한 음색을 이용하여 악기가 가진 음악적 유머의 가능성을 한껏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선율을 비롯하여 묘사적인 주제, 재즈가 연상되는 리듬 등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이는 변주도 매우 재밌습니다. 🎧

